

명시감상

—신경림 ‘가난한 사랑 노래’

운명애와 공동체적 사랑



김재홍 (순천대학교 수목문학)

‘남쪽에선/과수의 능금이 익는 냄새/서쪽에선 노을이 타는 냄새...//산위엔 마른 풀의 향기/들가엔 장미들이 시드는 향기...//당신에게 떠나는 향기/내게는 눈물과 같은 술의 향기//모든 육체는 가고 말아도/종성향 향기의 이름으로 남는/애틋하고 아름다운 것들이여/눈과 같은 하늘과 같은 것들이여...’

김재홍(가을의 향기)

가을이 무르익어가고 있습니다. 온 경계의 숲에는 불타는 듯 단풍이 물들어가고, 하늘에는 가을이 가득차 있는 것이지요. 이런 가을이 되니 세상 여기저기에서 자기의 삶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젊은 이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고군분투하는 분들, 그리고 병상에 누워 신음하는 분들의 안쓰러운 모습이 애뜻하게 떠오릅니다. 그래서 다가오는 겨울의 추위와 어둠이 오뎝 두려워지기 도 하구요. 이 한계절, 가을과 겨울이 아름답게 계절 황금을 이루는 시간에 문득 떠오르는 시 한편이 있습니다. 신경림시인의 시 ‘가난한 사랑노래’가 그것이지요.

가난하다고 해서 외로움을 모르겠는가. 너와 헤어져 돌아오는 눈발이 골목길에 새파랗게 달빛이 쏟아지는데, 가난하다고 해서 두려움이 없겠는가. 두 점을 치는 소리, 방법대원의 호각소리, 메밀묵사러 소리에 눈을 뜨면 멀리 뚝뚝한 기계 굴러가는 소리, 가난하다고 해서 그리움을 버렸겠는가.

운명을 아름답게 감싸안고 일어서려는 분투속에서 삶의 진실과 사랑의 진실이 드러날 수 있다.

내 불에 와 닿던 네 입술의 뜨거운 사랑한다고 사랑한다고 속삭이던 내숨결 돌아서는 내 등뒤에 터지던 네 울음. 가난하다고 해서 왜 모르겠는가. 가난하기 때문에 이것들을 이 모든 것들을 버려야 한다는 것을.

신경림시인은 주지하다시피 젊이었고 아름다운 서정시인, 정서를 써 오신 분이시지요. 민족·민중운동을 하면서도 항상 시의 향수를 모색하고 있는 당대의 서정적 민중시인이란 말씀입니다.

이 시에는 ‘이웃의 한 젊은이를 위하여’라는 부제가 붙어있는 데요. 말하자면 시민의 이웃 어린애에 살고 있는 한 근로청년의 삶과 사랑애기를 통해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가난한 이들, 근로하는 청소년들의 고단한 삶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체적인 면에서 이 시에는 비관적인 현실인식이 짙게 깔려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시간배정 자체가 ‘겨울·밤’이고, 공간적인 배경도 도시 변두리의 어두운 골목으로 제시돼 있기 때문이지요.

또 시를 이끌어가는 기본 틀이 ‘모르겠는가/모르겠는가/모르겠는가/왜 모르겠는가’와 같이 반복적인 의문형으로 짜여져 있으며, 시어들도 ‘헤어져/하나났을/등뒤에 터지던/돌아서는/버려야/한다’ 등과 같이 어두운 색조로 물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시전체의

대원의 호각소리/메밀묵사러소리/기계굴러가는 소리 등은 바로 그 젊은이의 고단한 삶과 동거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것이라 하겠지요. 세계 연에서는 현실이 고달프기에 두고온 고향, 어머니를 그리는 심사가 애절하게 제시돼 있습니다. 가난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새 삶을 찾아 떠나올 수밖에 없었다. 고향에 대한 애정은 화상이며, 그곳에 사시는 가난한 어머니에 대한 안쓰러운 그리움인 것입니다. <까치밥으로 하나 남은 새빨간 감>과 ‘어머니, 나는 이 젊은이에게 한가닥 남은 원형적인 사랑의 모습이라고 나 할까요? 그리고보면 이 시에 상심할까/바람갈까 같은 것이 지속적으로 흐르고 있다고 하겠읍니다.

내세 연에서는 이성과의 사랑 체험이 애잔하게 제시됩니다. ‘내 불에 와 닿던 네 입술의 뜨거운 사랑한다고 사랑한다고 속삭이던 네 숨결,이라는 구절처럼 젊은이의 뜨겁고 황홀한 사랑 체험이 안타깝게 표출된 것이지요. 이러한 감각의 구체성, 경험의 현장성이 있기에 신경림의 시는

이렇게 본다면 이시는 가난과 노동, 사랑과 이별이라는 기본항의 상관관계로 짜여져 있음을 알게 됩니다. 이시는 ‘외로움/두려움/그리움’의 정서를 표출으로 하면서 ‘가난’과 ‘사랑’의 비극 체험을 아름답게 고양시키고 있는 사랑시라는 말씀이지요. 가난하기 때문에 이루어보고 싶은 것, 가져야 할 많은 것들을 제대로 얻지 못하고 쓸쓸히 돌아서야만 하는, 이 땅의 수많은 젊은이들의 허약한 실존에 대한 애담으로써도 따뜻한 응시가 담겨있다는 뜻입니다.

사실 이 가난한 젊은이는 도시 변두리에서 고단하게 살아가는,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근로청년이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시는 가난하기 때문에 많은 것들로부터 소외되어 좌절을 겪으며 쓸쓸히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의 젊은 열혈들의 비애를 노래한 것이라고 하겠지요. 동시에 그러한 가난하고 슬픈 삶에 대한 유대감과 연대애를 드러내려고도 하겠읍니다. 그러면서 끝내 좌절하지 않고 일어서는 젊은이, 진실하게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젊은이의 모습을 통해서 진실의 따뜻함이 얼마나 소중한 아름다울 수 있는가를 이야기함으로써 애담은 감동을 자아낸다는 말씀입니다. 스스로의 운명을 아름답게 감싸안고 다시 일어서려는 눈물겨운 분투 속에서 삶의 진실과 사랑의 진실이 함께 드러날 수 있다는 소중한 깨달음을 우리에게 던져주기 때문입니다. 결국 올바른 삶의 길이란 올바른 인간

가난과 고단한 삶을 겪는 젊은이의 비애 그려 감각의 구체성·경험의 현장성이 생동감 전달

되어 살아가는 서민들의 모습이 안쓰럽게 제시됩니다. ‘두 점을 치는 소리’에 피곤한 삶의 모습이 투영돼 있으며, ‘방법대원의 호각소리’에 알지 못할 불안과 위압의 모습이 암시돼 있고, ‘메밀묵사러소리’에 애달픈 삶의 운명적인 노고가 제시돼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뚝뚝한 기계 굴러가는 소리’로서 기계문명에 짓눌려 살아가는 강박관념과 함께 노동의 원형음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이 연에서는 ‘소리’로서 삶의 고달픔과 우울을 감각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두 점을 치는 소리/방법

생동감을 던져준다고도 하겠읍니다. 그렇지만 이 젊은이의 사랑은 해피엔딩으로 맺어지지 않는 슬픈 운명입니다. ‘죽는날까지 하늘을 우러러/한정 부끄럼이 없기를/인내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 했다/새를 노래하는 마음으로/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가자/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라는 시 말입니다. 우리 이처럼 스스로의 운명을 다투어 사랑하고 진정으로 이웃을 사랑하면서 더불어 함께사는 자세로서 이 가을을 힘차고 맑게 살아야보면 어떻겠습니까?

서도 끝내 헤어져야만 하는 어떤 비극적인 사연이 내포돼 있다고 하겠지요.

이렇게 본다면 이시는 가난과 노동, 사랑과 이별이라는 기본항의 상관관계로 짜여져 있음을 알게 됩니다. 이시는 ‘외로움/두려움/그리움’의 정서를 표출으로 하면서 ‘가난’과 ‘사랑’의 비극 체험을 아름답게 고양시키고 있는 사랑시라는 말씀이지요. 가난하기 때문에 이루어보고 싶은 것, 가져야 할 많은 것들을 제대로 얻지 못하고 쓸쓸히 돌아서야만 하는, 이 땅의 수많은 젊은이들의 허약한 실존에 대한 애담으로써도 따뜻한 응시가 담겨있다는 뜻입니다.

사실 이 가난한 젊은이는 도시 변두리에서 고단하게 살아가는,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근로청년이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시는 가난하기 때문에 많은 것들로부터 소외되어 좌절을 겪으며 쓸쓸히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의 젊은 열혈들의 비애를 노래한 것이라고 하겠지요. 동시에 그러한 가난하고 슬픈 삶에 대한 유대감과 연대애를 드러내려고도 하겠읍니다. 그러면서 끝내 좌절하지 않고 일어서는 젊은이, 진실하게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젊은이의 모습을 통해서 진실의 따뜻함이 얼마나 소중한 아름다울 수 있는가를 이야기함으로써 애담은 감동을 자아낸다는 말씀입니다. 스스로의 운명을 아름답게 감싸안고 다시 일어서려는 눈물겨운 분투 속에서 삶의 진실과 사랑의 진실이 함께 드러날 수 있다는 소중한 깨달음을 우리에게 던져주기 때문입니다. 결국 올바른 삶의 길이란 올바른 인간

연재소설 창살에 스미는 햇살 <1>

글: 오 완 진 <영문> 그림: 김 중 범

동주는 감방 안 마루 바닥에 손가락으로 쓴다.

“너희는 식물이다.” 가면이 말한다.

“우린 식물이 아니다.” 군중들이 말한다.

“너희는 동물이다.” 가면이 채찍을 휘두르며 말한다.

“아냐, 왜 우리가 동물이나.” 군중들이 쫓겨가 숨을 드러내며 말한다.

“너희들이 인간이나?” 가면이 총을 쏘며 말한다.

“그래, 인간이다.” 군중들이 쓰러지며 말한다.

“너희들이 인간이라면 죽어 마땅한 바보 멍청이들이다.” 가면이 미친듯이 소리친다.

어스름한 학대 저편에서 아우성이 들린다. 북 소리가 들린다. 핏빛조명이 밝아온다. 쓰러진 것들이 보인다. ...연극은 이렇게 시작했다.

비가 구름구름하게도 내리고 있다. 동주는 질척거리는 길을 걷고 있다.

두번째 휴가를 다녀오는 길이었다. 품 속에 감춰왔던 오손의 책의 감촉이 싸늘하게 느껴졌다.

그 책은 김일평을 주려고 사오던 것이었다.

“휴가 귀찮습니다.”

“소속?”

동주는 소속을 밝혔다. 변책이는 사이카 빛깔 속에서 총구가 드러났다.

한 줄기 냉기가 그를 휘감고 있었다. 위병을 보던 담당 사관이 신봉음을 확인하면서 흘린듯이 말했다.

“통신대 새끼 하나가 튀었다.”

조심해서 올라가던 그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스치는 얼굴이 있었다.

그것은 어쩌면 예견된 일이라고 생각한 것도 바로 그 순간이었다.

어떤 불안감이 동주의 가슴을 압박해 오고 있었다.

빛들이 발바닥을 핏고 지나갔다.

동주가 막 일평을 달 두렵었다.

“오매 색시 하나 안왔다.”

신병 한 명이 전입을 왔다. 그를 둘러싼 내부 반 고장병들이 그에게서 흥미거리를 찾으려하는 듯이 보였다.

그는 잠시 당황해 하고 있었으나 그것은 고장병들의 즐거움처럼 보였다.

그는 묻는 말에 악을 쓰듯이 대답하고 있었다.

목소리에 미친 듯한 전율이 배어 있었다.

잡나지않은 새 군 화에서 두 다리가 떨고 있었다.

군계 천 주먹이 있고 그 위로 파발 백을 맨 오른 쪽 어깨가 유난히 물러가 있었다.

이마로부터 흘러내린 땀 방울이 턱 밑에 매달려 있었다.

누군가가 그를 비 맞은 토끼 같다고 말했다.

동주는 쪽 줄러 손 모아 밑에서 살아 움직이는 눈을 보았다.

신병 환영회가 시작되었다.

이빨을 드러내며 유난을 떨고 있었다.

그는 사무실에 애원 하나 생겼다고 말했다.

환영회가 한참 진행되고 있었다.

신병은 마치 무전기를 수신하는 듯한 목소리로 자신의 신상명을 밝히고 있었다.

그런데 그가 막 출신 학교를 말하고 있을 때였다.

갑자기 허병장이 그의 말을 끊어 버렸다.

“아, 그 그 자속 데모가 하나 해보그라.”

“예?”

“대화 다니다 온 자속이 데모가를 몰라- 영? 이곳도 하고.”

허병장이 자신의 오른 팔을 흔들며보이며 말했다.

그의 말이 내부반 분위기를 여색하게 만들었지만 민류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신병이 당황해 하며 주저하자 허병장이 큰 소리로 욕박질했다.

신병은 마지못해 ‘넌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기 시작했다.

그가 노래하는 동안 허병장의 눈빛이 변해가고 있었다.

그가 중대 행진반에 배속 되었다.

그는 그림 자처럼 허병장을 따라다녀야 했다.

허병장은 일을 가르친다는 명목으로 그를 마구 다루었다.

가끔씩 그의 머리에 부딪치는 둔탁한 소리가 들렸다.

어느날 오후, 중대장이 노란 병투를 그에게 주었다.

병투 안에는 영문 원서가 들어 있었다.

중대장이 대화 논문을 쓰기 위한 원서였다.

그것을 보는 허병장의 얼굴이 심하게 일그러졌다.

그가 삼일제 밤샘을 하려던 날이었다.

허병장이 사무실 요원을 모두 집합 시켰다.

이유는 간단했다.

사무실 일을 너무 태만히 한다는 것이었다.

그것은 중대장이 시킨 일을 애초부터 못마땅해 오던 그의 시기심이 발동한 것임을 동주는 잘 알고 있었다.

“이제 뭘지 알구나?”

허병장이 빠진 앞 이를 가리키며 말했다.

누구도 대답하려 들지 않았다.

그것은 자신도 고장병들로부터 수없이 맞으며 군 생활을 해왔다고 자랑처럼 말했기 때문이었다.

그것이 동주나 그를 괴롭히는 보이지않는 이유였다.

즉, 보복의 논리, 지배의 논리가 군대니까 말에 묻혀 있었다.

그 역시 억압과 굴종의 시간 속에서 살아왔다는 동주의 비애감을 동주는 느꼈다.

구타는 정당화된 것처럼 보였으며 그런 일이 삼일 동안 계속 되었다.

그는 중대장이 시킨 일을 진척 시키지 못했다.

중대장의 눈, 혈관의 눈초리가 그의 생활을 위축시키기에 충분했다.

그런 고통을 받고 있는 그에게서 동주는 조금씩 동정심을 느끼고 있었다.

개미리 잎이 떨어져 뿌연 황토 먼지속에 쌓여있던 시작했다.

태양이 총총한 눈으로 떨어지고, 그것은 장벽처럼 연평장을 둘러싸고 있는 나무들 위로 빛나고 있었다.

“김이병, 나 오늘 외박 나가는데 필요한 것 없어?”

“없습니다.”

“그러지 말고 말 해.”

동주는 김이병의 어깨를 가볍게 치며 말했다.

월의 한 낮이 평범하게 부풀고 있었다.

“그럼 책이나 한 권 사다주시지요.”

김이병이 마지못해 하는 눈치로 말했다.

동주는 책 이름을 들었을 때 자신도 모르게 중얼거리고 있었다.

학교를 다니면서 열릴 것 같은 책이었다.

그러나 동주는 심상 못여 보였다.

그에게 호의를 베풀고자 하는 마음이 앞서고 있었다.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다.

가파른 역덕길 위에 검은 돌기둥 두 개가 서 있다.

사각의 어둠이 무겁게 내려서고 있었다.

동주는 자신의 발자국 소리가 마치 짚단을 자르는 작두질처럼 들렸다.

병병처럼 둘러 선 플라타너스 나무가지가 미친 듯이 머리처럼 울어져 있었다.

<계 속>

연재소설 작가의 말

이 란을 통해 문학에 관심을 갖고 있는 많은 경희 학우가 발전적 참여가 있기를 바라고 그것을 통해 내 문화가 활성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소설은 억압받고 있는 민중의 한 인물을 그리고 있습니다.

“우리모두가 억압의 대상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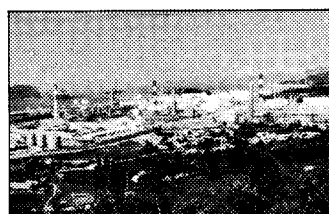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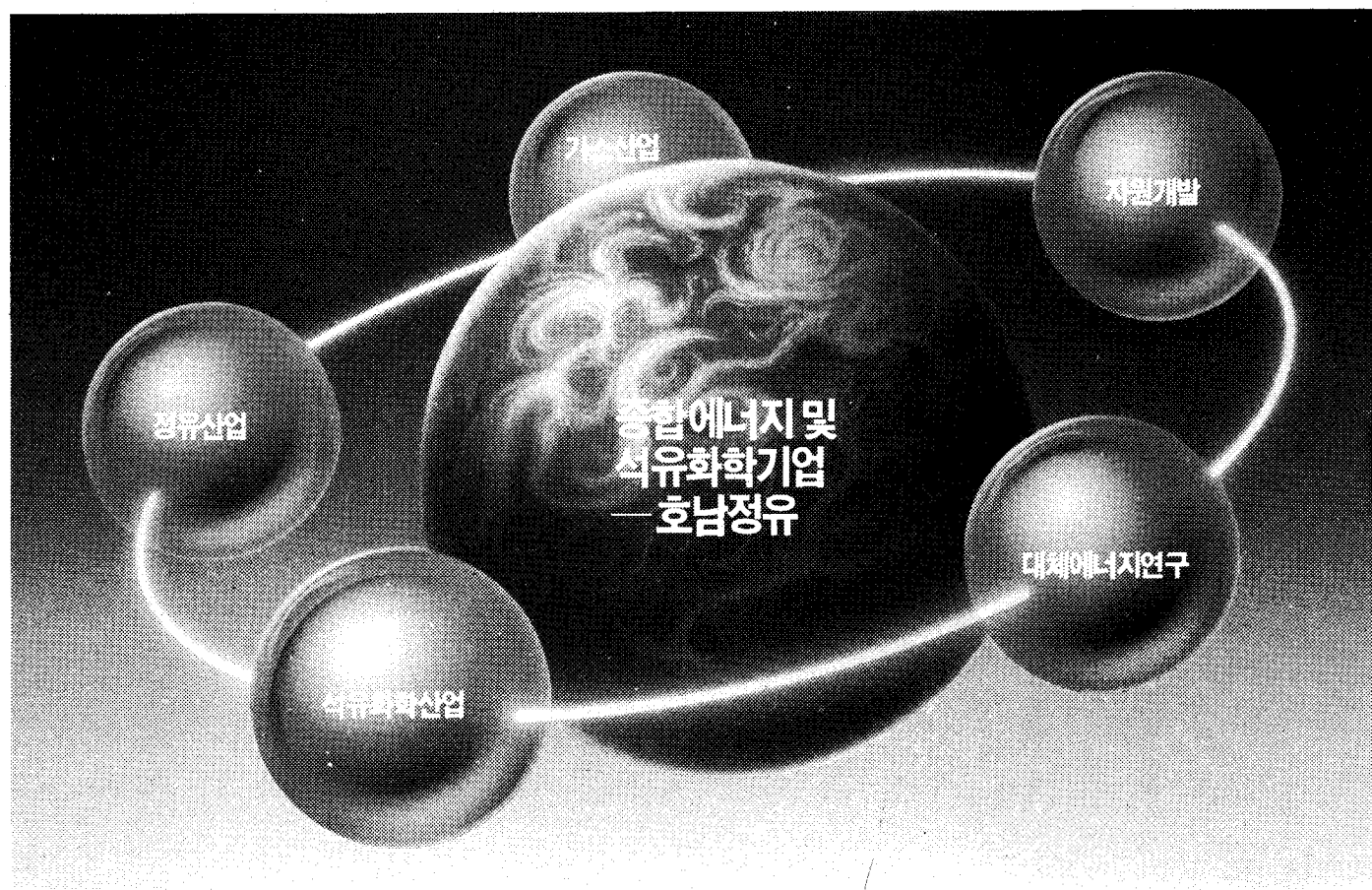
대장자가 되어 있습니다. 한가지 변을 붙이지만, 제가 이 글을 쓰겠다고 계획과 구도를 신문에 담겨주고 바로 ‘윤석양 양심선언’이 터졌습니다.

민간한 것이 아니냐는 오해를 받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님을 밝힙니다. 끝으로, 이 글을 보면서 조금이라도 공유하는 점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보안사 사장은 반갑지 않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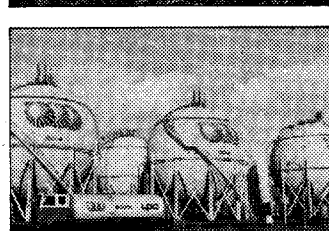


2천년대 종합에너지및 석유화학산업, 호남정유가 맡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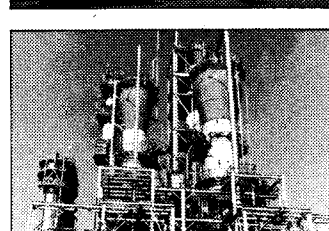
우리나라 최초의 민간정유회사로 출범해 국내 석유공급체계의 순수 민간화시대를 개막한 호남정유— 이제 호남정유는 20여년간 한국의 정유산업을 이끌어 오면서 축적한 기술을 바탕으로 가스, 석유화학, 국내의 자원개발 및 대체에너지 부문에 과감한 투자와 연구개발에 박차를 가함으로써 2천년대 종합에너지 및 석유화학 기업을 목표로 힘찬 향진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도전과 의지로서 이룩하려는 호남정유의 미래상— 호남정유는 도전으로 미래를 성취하려는 내일의 기업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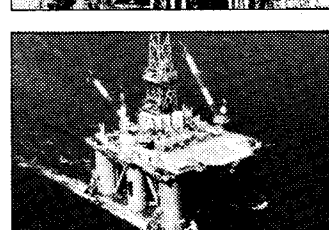
정유산업
지난 20년간 한국의 정유산업을 이끌어온 호남정유는 일일 38만배럴의 생산능력을 갖춘 국내 최대의 정유회사입니다.



가스산업
호남정유는 무공해연료인 가스의 확대공급을 위해 1984년 여수에너지(주)를 설립하여 열병합발전설에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석유화학산업
호남정유는 이미 폴리프로필렌 공장을 준공하였으며, BTX 공장을 비롯한 최신의 각종 석유화학장도 설립할 것입니다.



자원개발 및 대체에너지
호남정유는 에너지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국내외 자원개발 및 대체에너지개발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